

주일에배

SUNDAY WORSHIP

- 1부 : 신앙의 유산을 따라 드리는 전통 예배
- 2부 : 찬양의 향기를 드리는 디아코니아 예배
- 3부 :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풍성한 예배

인도 1부 : 황수영 목사 2부 : 최성구 목사 3부 : 전성민 목사				
1부, 7:30    2부, 9:00    3부, 11:00    4부, 젊은이예배 13:00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말씀		요한복음 4:24		인 도 자
개 회 찬 송				찬 양 대
		1부	2부	3부
※찬 송	29장	경배와 찬양 (이곳에 생명샘 찾아나 외 4곡)	경배와 찬양	다 같 이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사도신경	
※성 시 교 독	66.(시편150편)		66.(시편150편)	
기 도	진갑용 장로	지세진 장로	최병순 장로	말 은 이
찬 송	370장		370장	다 같 이
봉 헌				다 같 이
교 회 소 식				인 도 자
성 경 봉 독		사무엘하 15:19-25		인 도 자
찬 양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arr 김광호		임마누엘찬양대	
	주 능력안에 모든 일 할 수있네 J. M. Martin		여호수아찬양대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이형구		시온 찬양대	
말 씬	그때에 고난이 온다면			김한호 목사
※찬 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 이
※축 도				김한호 목사
※ 표는 일어서시는 표입니다				

4부 젊은이예배				
찬 양	청년부 경배와 찬양			
기 도	김예원 청년			
성 경 봉 독	출애굽기 32:25-35			유현조 청년
말 씬	하나님과의 일치			박도준 목사

영혼을 깨우는 예배

CHUNCHEON DONGBU WORSHIP

찬양예배		[오후 7시]	인도 : 최성구 목사
목 도	고린도전서 12:31		다 같 이
찬 송	254장		다 같 이
기 도			홍기종 집사
찬 송	309장		다 같 이
교 회 소 식			인 도 자
성 경 봉 독	빌립보서 2:12-18		인 도 자
찬 양			브니엘 찬양대
말 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전성민 목사
찬 송	310장		다 같 이
축 도			전성민 목사

수요기도회		[오후 7시]	인도 : 전성민 목사
목 도	고린도전서 12:31		다 같 이
찬 송	180장		다 같 이
기 도			김경자 권사
찬 송	210장		다 같 이
교 회 소 식			인 도 자
성 경 봉 독	창세기 46:1-7		인 도 자
찬 양			기드온 찬양대
말 씬	창세기[46] - 입애굽		최성구 목사
찬 송	197장		다 같 이
주 기 도 문			다 같 이

2	금요일의 은혜로운 밤(심야기도회)		
	매월 첫째주 금요일	오후 8시	대예배실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

예배 · 모임 · 교인동정

CHUNCHEON DONGBU COMMUNITY

예배·봉사위원	
■ 2월 헌금위원	
1 부 : 박영동 김효순 원정희 정춘원 조영자 2 부 : 송태욱 박지나 이은애 이명순 김선호 정순숙 문옥자 이정옥 김정희(2-5) 3 부 : 김명현 강철숙 고은영 김순이 노성숙 박정숙 신영희 양인덕 이의숙 중층 : 홍기종 신현진 이승주 윤은경 전형식 김소연	
■ 2월 예배위원	
1 부 : 이상근 박영임 이숙안 2 부 : 류민의 송가운 김희정 3 부 : 장동길 강신애 박경옥 (4층) 이기정 (5층) 홍종성 저녁 : 김지현 이옥례 심명자 정영지 박경혜 김면이	
■ 다음주 기도	
주일예배 1부 장병섭 장로                      2부 김학구 장로 3부 김남철 장로                      4부 나미선 권사 찬양예배 : 박영동 집사 수요기도회 : 나미선 권사	
■ 주일 식당 봉사	
이번주 : 2/가축1구역 ~ 3/2구역 다음주 : 3/3구역 ~ 3/7구역	
■ 주차 안내	
- 향촌직 및 장기봉사자는 시청주차장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이중 주차시 기어를 중립해 놓으시고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 모든 차량은 주차봉사원의 안내와 지시를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교인동정		
성 명	교구/구역(구역장)	내 용
이은지	3-2(전경혜)	입원 - 한림성심병원 동관 513호
박복임	1-2(박복임)	입원 - 좋은아침병원 501호
홍영숙	2-9(윤순옥)	입원 - 강원대병원 어린이 병동 5010호
임향미	4-8(이윤숙)	입원 - 강남병원 506호
김주용	3-1(이순옥)	입원 - 강원대병원 4202호(이창호 권사)
강주영	5-16(목회)	입원 - 서울삼성병원 암병원 712호(최홍섭 성도)
최보진	1-3(이윤희)	득손녀 - 3일(월)

어부의 눈

FISHERMAN STORY

‘어부의 눈’을 통하여 지난주 설교요약을 전합니다. 목회자는 고기를 잡는 어부의 심정으로 생명의 말씀을 건져 올리기에 ‘어부의 눈’이란 이름을 정했습니다.	
가정예배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1.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2. 성경봉독 : 느헤미야 2:17, 느헤미야 8:1-6	
3. 말씀요약 : 호수에 지난 9월부터 큰 산분일 나서 5개월이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진작가가 까맣게 타 죽은 나무에서 아름답게 피어난 꽃을 발견하여 세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죽은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도 반드시 희망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히게 되고, 성벽과 성문은 모두 불에 타 예루살렘에 황폐해졌습니다. 먼 타국에서 포로로 지내던 느헤미야가 조국의 무너진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객지에서 자리를 잡고, 높은 지위를 얻고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좋았을텐데, 느헤미야는 조국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청하자, 왕은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주고, 조서와 건축 재료를 조달받게 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매” 아멘! 나의 높은 지위로 이렇게 해결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공사는 사단의 방해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건축을 마친 후에도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끝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율법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부릅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에스라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합니다. 필리핀 선교지에도, 교회 내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청년부와 교회학교 자녀들의 수련회를 통해서도 허물어진 모든 것들이 다시 재건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 말씀 나누기 : 가족들과 자유롭게 나눕니다.	
4. 삶의 적용 : 내 삶의 무너진 부분을 세우기 위해 ‘말씀’을 다시 붙드는 한 주간이 됩니다.	